

메디올로지의 영역

- 정치사에서 기술사로 -

레지스 드브레(Régis Debray)

1. 메디올로지적 연구태도

메디올로지는 하나의 독트린이 아니다. 즉 그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제시되거나 혹은 인간의 행위나 존재의 방향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가치들이 아니다. 메디올로지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며, 어떤 고정된 입장을 고수하거나 가치판단을 시도하지 않는 일종의 분석방법이다. 그것은 사회사와 관계된 여러 영역들을 새롭게 조명해 줄 수 있다. 메디올로지적인 관점을 국가나 교육, 공연, 또는 개별 종교나 문학갈래에 적용한다고 해서, 특정 유형의 국가형태에 반대하고 특정 유형을 수호한다거나, 텔레비전을 비판하고 연극을 수호한다거나, 소설보다 노래를 지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메디올로지를, 지난 세기에 사회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특별한 분과학문 기획으로 볼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우리는 메디올로지의 정의를, 상부구조적 사회기능들(예술, 이데올로기, 정치, 종교)을 그것을 전달(transmission)하는 테크놀로지의 구조와 관련시켜서 다루는 학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기술의 모든 교차지점은 메디올로지의 연구영역이다. 좀더 개략적으로 말하면 메디올로지는 우리의 삶, 신념, 사고의 양식들과, 우리의 기억, 전달, 운송의 절차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영역 속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좀더 단순하게 연구에 임하는 어떤 정신적 태도, 접근각도, 다양한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 지적 전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회학의 여러 분과를 예술사회학, 자살사회학, 음식 또는 노동사회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메디올로지가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함께 다루려 할 때, 우리는 메디올로지학자로서 행동하는 것이다: (1) 사회적 상징자료군(어떤 집단의 사고방식, 독트린 전통, 정치적 변형) (2) 실천적 조직의 형태, 그리고 (3) 흔적을 포착, 기록, 소통시키는 특정 양식 (또는 문화적 테크놀로지).

2. 메디올로지의 연구영역

우리 시대의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가 메디올로지의 우선적인 연구영역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하게 메디올로지의 영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방법론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는 가시적 관계가 없는, 좀더 멀리 떨어진 역사적 실체들 또한 조명할 수 있다. 기독교의 예를 들어보자. 이 종교에 대한 메디올로지적 접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구성된 어떤 복합체의 유래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어떻게 하나의 상징체계인 “복음”의 메시지 - 고립되고, 극히 소수지향적인 이 메시지가, 탄생한 지 3세기 후에는 로마제국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된 신앙체계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조건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기독교는 전지구적 전달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기독교라는 사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동시에 형성되었다:

- 1) 신학적 자료군 - 도그마들과 비의들 일체
- 2) 사제제도 - 상호종속적인 직책들의 피라미드
- 3) 실체화(incorporation), 주입, 포교로 이루어진 물질적 절차, 즉 기독교의 설교, 낭독, 코덱스형 서책, 각종 의식들.

이 마지막 요소는 기록과 전달 절차의 특정한 상태, 즉 언어중심세계(logosphère)를 반영하는데, 이러한 기록과 전달의 절차는 구어적·문자적 기억 테크놀로지에 고유한 것이다. 종교학에서 이 세 가지 결정력은 지금까지 각각 분리되어 연구되어 왔다. 즉 첫번째는 신학에서, 두번째 것은 교회학, 세번째는 종교의식과 성경교육의 역사에서 다루어져 왔다. 메디올로지의 독창성은 첫째 이러한 기초적 요소들을 재조립하고, 둘째 어떻게 마지막 두 수준이 첫번째 수준을 조건짓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메디올로지는 기술의 층이 정치의 층을 지탱하고, 정치의 층은 다시 상징체계의 층을 지탱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교회학이 신학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설명태도는 혹자에게는 전혀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메디올로지적 연구태도가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째, 기존의 학문간의 지나친 격리에 기인한 것이고, 둘째, 우리가 최근 들어 물질문화를 무시하고 사회적 기능을 상징적 차원으로 환원시켜 설명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해독하면서, 기독교라는 사건, 즉 교회조직과 메시지의 보급수단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각각의 신념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공동체가 의사소통과 기억과정의 특별한 기술(듣기, 읽기, 쓰기의 노우하우)을 지녔음을 전제한다. 슈티글레르가 잘 보여주었듯이, 글쓰기는 텔레비전이나 정보기술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인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유형의 분석을,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은 인쇄문화 및 책을 다루는 직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¹⁾ 우리는 사회주의 운동의 기원에 대해 쓰여진 학술서적 속에서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한다. 기독교에 대한 몇몇 기독교주의적 접근들이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얻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만큼이나, 사회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마르크스주의라는 이념형성체의 실제조건을 은폐해 왔다. 역사가 우리에게 물려준 각각의

1) 줄저 『일반 메디올로지 강의 (Cours de médiologie générale)』(Paris: Gallimard 1991)를 볼 것.

이데올로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적, 문화적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되살리는 것, 이것은 미디어로지 연구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종교나 무슨 “주의” 같은 이념형성체가 갖고 있는 “상징적 효율성 (l’efficacité symbolique)”의 수단을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일은, 과거의 지식사와 비교할 때 이론의 여지없이 매우 전복적인 작업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원(input)에 대한 탐구를 배출(output)에 대한 탐구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습관화된 기존의 연구작업의 순서를 뒤집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고는 무엇의 산물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실질적으로 생산되었나?”를, “이 정보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이 새로운 정보가 이 집단의 정신내용과 권위기구 속에서 무엇을 변형시켰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처럼 어떤 철학의 발전을 비철학적인 것에 의해서, 정신적인 것을 비정신적인 것에 의해서, 담론을 비담론적인 것에 의해서 서술하는 일은, 더 이상 메시지를 쓰여진 그대로의 내용으로 취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메시지가 되어가는 과정, 확산, 보급 등 좀더 은폐되어 있고 빛나지 않는 현상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담론의 기원, 스타일, 내용 등 그동안 지성사 연구에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연구대상들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여겨졌던 결과 앞에서 모습을 감춘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호의 세계를 해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호의 실재화과정(devenir-monde), 즉 상징적 형태들이 물질적 힘이 되는 과정(devenir-forces)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

“主義(ismes)”의 세계, 혹은 한 사고의 창시자의 이름에 집단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생겨난, 플라톤주의, 크리스티아니즘, 마르크스주의, 프로이드주의 등등의 세계는, “學(-iques)”의 세계(수학, 물리학 등)와는 달리 정당화에 대한 요구를 추종하는 형성체들이 아니다. “學”의 세계에서의 진리생산 메카니즘은 『지능 테크놀로지(technologies de l’intelligence)』(Pierre Lévy, 1990)나 『움직이는 과학(la science en action)』(Bruno Latour, 1989) 등의 저서가 해부해서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신념과 집단화(l’être-ensemble)의 테크놀로지는 “學”의 세계에서의 진리생산 메카니즘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연구영역을 열어 놓는다. 실험

에 의한, 또는 오류의 입증 가능한 진리 생산에 대한 지식보다, 신념과 “주의”의 세계를 형성하는 어떤 영향력이나 장악의 기체에 대한 우리의 분석이 지체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현재 집단적 상상력의 메카니즘 보다는 과학적 지식생산의 소용돌이와 네트워크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신념이나 “주의”의 메카니즘은 과학적 법칙이나 공리의 메카니즘보다도 더 분석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권력자의 일상적 근심거리인 텔레비전보다는 지식인의 일상적 도구인 컴퓨터의 사용과 효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3. 메디올로지의 연구방법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는 구약성서의 잘 알려진 구절은 바로 발화행위는 곧 창조라는 공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는 흔히 “세계를 뒤흔든 말들”이나 “사물을 변화시킨 사상”이라고 표현한다. 그때 우리는 마치 성경의 창세기에 등장하는 神처럼 말을 통해 세계를 바꾸려는 생각을 한 셈이다. 이러한 상징적 어법들은 말이 수행되는 과정의 신비로운 효과를 당연한 것인양 표현함으로써 그 과정을 은폐한다. 그러므로 메디올로지학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나자렛 예수의 말이 어느 순간엔가 로마제국을 변화시켜 기독교권을 탄생시켰다는 것; 아우구스티누스파의 한 독일수사가 비텐베르그 마을에 라틴어로 된 95개 조문을 붙였다고 해서 “신교”가 탄생하고, 내전이 발발했으며, 새로운 국가와 북유럽에 새로운 자본주의적 도약이 일어났다는 것; “공산주의 선언”이 “공산주의 체계”를 탄생시켰다는 것. 간단히 말해서 세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 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세계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실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수께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아니면 사이버네틱스에서 말하듯이 이것을 블랙 박스라고 부르자. 블랙박스의 입구에는 어떤 말들, 문자들, 가벼운 기록의 흔적들이 있고, 출구에는 법안, 제도 등 힘을 행사하는 상징적 구성체들이 놓여 있다. 이 블랙박스를 분해하는

것이 곧 우리가 전달사건(transmission) 이라고 부르는 것을 분석하는 일, 바꾸어 말하면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의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가스에서 액체로의 변화가 아니라, 어떤 정훈내용이 어떻게 군대 형성이란 결과를 낳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언설이 하나의 정당이나 국가형성으로 이어졌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철학전통으로부터 이데올로기란 개념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사고(思考)와 사건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데올로기는 시각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거울 속에 비친 현실의 반영, 감지가 가능한 세계가 두뇌 스크린 위에 전도되어 고정된 영상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비록 그 기원이 마르크스주의에 있더라도, 바로 이 상징세계의 추상적 개념과 결별하고, 사상사로부터 전달과 기록재료의 역사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곧 메시지를 담지하는 조직 혹은 전달의 집단적 주체의 문제, 기록 및 유통의 수단, 상징화의 기구와 재료 및 절차, 또 우리가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신비화된 의미를 부여해 쓰고 있는, 미디어란 말로 혼동스럽게 부르고 있는 것들의 역사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한다.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매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 1) 상징화의 일반적 절차(구어, 문자, 아날로그영상, 디지털형태 등)
- 2) 의사소통의 사회적 코드(구어, 메시지가 발화된 자연어, 라틴어, 영어, 체코어 등)
- 3) 물질적 기록과 저장재료(진흙,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 테이프, 스크린 등)
- 4) 전파 수단의 네트워크와 연결된 커뮤니케이션 기구(필사소, 인쇄소, 사진, 텔레비전, 정보산업 등)

이제부터 매체를 기구-기록재료-절차의 시스템이라는 강력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자. 메디올로지적 혁명이 유기적으로 뒤흔드는 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다. “글쓰기”절차는 “인쇄술”기구에서 “텔레비전”기구로,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으로 옮겨가면서, 그 의미와 영향력에 변화가 발생한다. 컴퓨터 화면의 알파벳 기호는 종이 위에 쓰여진 동일한 메시지와는 다른 매체이다. 이 기호는 이미 문자중심세계(grapho-

sphère)에서 벗어나 있다. 기록재료와 네트워크에 대한 사고가 배제된 문자적/구어적이라는 단순대립항이 불충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서구가 16세기에 경험했고 오늘날 겪고 있는 메디올로지적 혁명은 기존의 언어코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인쇄술은 불어의 구문이나 어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다른 전달양식을 폐지하지도 않는다(16세기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설교를 했고, 손으로 글을 썼다). 인쇄술 혼자서만 종이라는 새로운 물질적 기록재료를 제조한 것이 아니며(섬유종이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새로운 책의 형식을 만들어 낸 것도 아니다: 두루말이가 아닌 “코덱스”의 형태는 수세기 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로제 샤프띠에(Roger Chartier)가 상기시켰듯이 책의 형태는 구텐베르크 이후 거의 1세기 동안이나 필사본의 모습을 답습했다. 그러나 얼마동안의 침체기간의 지체를 넘어서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알파벳의 대중교육을 통해 독서양태 전체는 아닐지언정 적어도 글쓰기의 상징적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에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기술은 “근대성”이란 특성을 지닌, 새로운 인류학적 구조의 모태이며 동력의 기제가 되었다.

이런 종류의 모든 혁명은 다요인적 과정이다. 따라서 매체를 유일한 원인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환원론에 빠지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강조하려는 것은 매체는 메디올로지적 혁명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점이다. 다니엘 부뉴(Daniel Bougnoux)의 말을 빌리면, 기계복합체의 영향력은 전체 효과의 절반에 해당할 뿐이며 환경(le milieu)이 나머지 절반을 담당한다. 따라서 인과성은 선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인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전염병학과 미생물학의 접근방법은 우리에게 매우 시사적이다. 바이러스의 변화가능성은 바이러스를 받아들이는 토양에 의존한다(예컨대 인간의 몸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침팬지 내부에서는 해롭지 않다). 이와 마찬가지로 메디올로지적 효과의 변화가능성은 매체적 변화를 수용하는 토양역할을 하는 문화적, 사회적 저항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모든 환경은 자연발생적인 면역체계를 지닌다). 동일한 기제가 이곳에서는 전염병으로 드러나고 다른 곳에서는 잠재상태로 남는 것이다.

같은 메카니즘으로 11세기의 중국도양은 새로운 기술인 분리활자를 키우고 사용할 수 없었으나, 이것은 15세기에 세계의 다른 끝에서 나무와 납을 거치면서 재등장하고 성장했다. 11세기 당시 중국에서는 목판화가 당시의 미약한 인쇄물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고, 과중한 투자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붓글씨체를 훨씬 쉽게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따라서 하나의 기술과 하나의 문화 사이의 관계는 자동적이지도 일방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선적인 사고에 기반한 글쓰기가 어떤 주어진 환경 안에서 발전시켜 나갈 행위유형들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러한 선적인 기억화 절차를 모르는 모든 문화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다 : 선적인 글쓰기를 모르는 문화 속에서는 차례만들기, 사건의 리스트, 컬럼만들기 등이 불가능하다. 즉 비모순적인 논리, 직선적 역사, 축적되는 기억 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주의는 선적이고 기계적인 인과론을 시스템이론적 모델과 바꾸지 않았던가? 우리는 사하라에는 초목이 없으므로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니 초목이 없다는 순환적 인과론에 대해서 잘 안다. 기독교는 교회 의식 중 낭독할 때 한 손으로 만지기에 부적합한 두루말이(volumen)를 제치고 책모양의 코텍스가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왔다. 역으로 운반이 간편한 코텍스는 이교도 신앙에 대해 기독교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왔다. 다시 말해서 이 두 현상은 서로를 생산했다.

이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해서, 매체를 구성하는 기록재료-기구라는 미시적 시스템에,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메디올로지의 연구대상인 사회-기술 복합체라는 거시적 매체-환경이 상응한다. 이때 “환경”은 배경, 혹은 유통의 외부공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동시에 기술적인 하나의 조직(organization)이다. 하나의 전달환경. 또는 매체세계(médiasphère)는 그 내부에 매개자들의 위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하며, 매개자들의 위계는 그 전달환경을 통해서 결정된다.

4. 메디올로지적 접근의 특성

미래학자의 과오와 미래주의자들의 실망은 대개 환경, 즉 과거의 매체 세계가 지닌 무게와 문화적 저항을 과소평가하고 새로운 매체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설명은 명약관화하다. 매체가 새로운 것인 반면, 환경은 본질적으로 오래된 것이다. 환경이란 기억과 기존 능력들의 성층화이며, 모든 과거시대의 기록재료와 수단들의 집합이다. 현재적 매체환경이란 파피루스, 양피지, 종이인 동시에 컴퓨터 화면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상형문자이고 알파벳이며, 텍스트이고 하이퍼텍스트이며, 필사본, 인쇄본, 빛나는 화면이기도 하다. 개인들 또한 매체세계와 같다. 매체세계들은 오래된 차례대로 가장 근대적이고 효율적인 최근에 등장한 것 밑에서 서로 포개어 진다. 오늘날 헤게모니적인 매체세계는 비디오중심세계(vidéosphère)이지만 내일은 정보중심세계(infosphère numérique, 즉 인터넷)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중심세계(numérosphèr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해 보자. 메디올로지 속에서 “메디오(medio)”는 매체나 미디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개, 즉 기호의 생산과 사건의 생산 사이에 놓인 중재적인 여러 조직과 절차의 역동적 전체를 말한다. 이때 “사이에”는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가 말하는 “잡종(hybrides)”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것은 기술적이고 문화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중재이다. 우리는 학문간 격리라는 기존의 전통 때문에 이러한 교차점과 혼합점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도구를 잘 갖추지 못했다.

현재의 모든 연구들은 마치 기술의 문제(어떤 기체가 작용하는가?)를 의미의 문제(어떤 답론을 이해해야 하는가?)나 정치의 문제(어떤 권력이 어떻게, 누구에게 실행되는가?)로부터 무의식적으로 분리시킨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을 찾음으로 해서, 메디올로지학자는 스스로 기술사가인 동시에 기호학자,

사회학자로 일해야 하고, 주체의 세계를 객체의 시스템에 재조정해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다. 지금까지 인문사회과학의 어떤 개별 학문도, 상징적 효율성이 제기하는 총체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몇몇 예외적 시도를 제외하면, 철학은 다양한 기술적 양태와 그것의 역사적 변이에 등을 돌린다. 역사는 인류학적 불변요소와 그 불변요소를 설명하는 개념을 외면하고, 기술사가들은 주체와 사고방식의 문제를 외면한다. 게다가 기호학자는 이 둘 다에 등을 돌린다.

메디올로지적 정신의 “태도”란, 지적 삶과 물질적 삶, 사회적 삶 사이의 교차점에 손을 대어, 너무 조용하게 남아 있는 이들 사이의 경계점들이 빠그덕거리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연결점, 즉 기존의 기호적 설명 체계들이 배제한 제 3자, 즉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물질에 연결시키는 지점을 찾는 일이다.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의 사상운동을 메디올로지적으로 분석한다고 하자. 그것은 먼저 다음과 같은 비공식적인 매개의 장소들을 분석해야함을 의미한다. 학회나 좀더 규칙적인 기구들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들. 즉 사회적 오락의 축이면서 지성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인 클럽, 살롱, 집회, 극장의 특별석, 독서실, 문학모임, 서클들을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면 서점이 문학보다, 특별한 만남의 장소는 공공장소보다, 신분이 낮은 가십전달자가 위대한 작가보다 더 시선을 끌만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메디올로지적 시각에서 보면, 계몽주의란 텍스트 분석으로써 이해할 수 있고 재구성할 수 있는 독트린의 집합이나 담론이 아니다. 계몽주의는 기호의 제작/유통/저장 체계 속에서 일어난 변화로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의 등장이란 사회성의 매듭과 네트워크의 등장, 새로운 의식과 실천을 지닌 인터페이스의 등장을 의미하며, 이것이 바로 의견생산의 수단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요컨대 계몽주의란 공공정신을 형성하는 18세기 프랑스 사회의 중요 지점들의 재조직화이고, 이러한 재조직화는 중재집단들의 자리이동에 의해 발생했다. 프랑스 혁명을 결정한 것은 계몽주의 사상이나 주제들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중재의 병참술(logistiques)인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사상은 결코 하나의 실체를 형성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러한 메디올로지적 접근은 가치를 담아내는 용기와 거기에 담기는 가치 사이의 담을 허무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오

히려 이들 사이의 상호교차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이데올로기”를 탈이데올로기화시키고, 종교나 신념과 같은 신성체를 탈신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역으로 기록재료에게 정신성을 부여하고 우리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정신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메디올로지적 분석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시대의 기억술 도구를 정신화하고, 그 시대의 정신적 도구를 물질화해야 한다.

5. 커뮤니케이션 개념에서 전달 개념으로

전달(transmission)이라는 개념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나친 기술주의적 개념화가 배제한 정치적 차원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전달이라는 개념은 기존의 커뮤니케이션이란 개념을 포괄하고 증첩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달하기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술주의적 개념화가 전제하듯이 하나의 메시지를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 유통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다. 전달이란 메시지 유통의 네트워크 자체를 조직하는 과정이다. 이때 조직하기란 곧 위계화하고 폐쇄하고 배제하고 투쟁하기, 간단히 말하자면 기술적 전파시스템의 상류에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하나의 매개조직(교회, 정당, 학교, 조합 등등)을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개신교,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전선이나 케이블, 헤르츠파를 통해 전파되지 않았다. 이것은 전신이나 전화의 메시지가 아니다. 2천년 동안이나 기독교의 창조신화가 광대한 영역을 이동할 수 있게 한 입에서 입으로의 전달체계는, 정보이론이나 그것의 동시대적인 여러 이론들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인류의 신화저장고는 수천년 전에 그 기반이 생성되었으며, 신화라는 상징적 짜임새가 지금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어 온 것은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순간적인 반면, 전달은 하나의 끊임없는 전달사슬처럼 기능한다. 커뮤니케이션 행위 속에서 발신과 수신은 시간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행위자는 통신선의 양 끝에 동시에 현존한다. 반면 전

달은 역사적 과정이다. 여기에서 시간성은 전달 현상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 자체의 구성요소이고, 그것의 원동력인 동시에 존재 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지워버리기 위해, 엔트로피를 거슬러 오르기 위해, 적어도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격리지대”를 시간이란 엔트로피에 대립시키기 위해 전달하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상대방이 현재하든 아니든, 두 사람에 관련된 효과이다. 한 점과 다른 점 사이의 시퀀스인 것이다. 그러나 전달은 집단적 과정이다. 이것은 통신선 위의 두 점 사이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다. 여기에서 전달을 집단적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고 듣는 개인이 역사적으로 구조화되고 인격화된 사회조직체라는 의미에서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집단적 개인들이지, 서로서로 코드화된 기호를 보내는 인간의 얼굴을 한 “칩”과 같은 고립분자들이 아니다. 전달의 주체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처럼 정보원(source)이 아닌 것이다.

6. 전달은 곧 권력의 문제

“커뮤니케이션 행위”는 평화롭다. 어떤 힘도 이 행위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전달은 폭력적인 집단과정이다. 전달에는 분쟁과 잡음, 광기가 엉켜있다. 이것들은 전달에서 비롯된 결과의 내부나 그 주변, 그 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전달에 정보를 제공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존재한다. 사상의 전달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고, 과학적 연구 결과의 전달은 결코 과학적이지 않다. 모든 전달은 당장에 권력기구와 지배관계란 문제를 제기한다. 모든 전달은 잡음과 타성, 또다른 전달자들, 그리고 특히 수신자에 대한 하나의 전투이다.

기독교 신학은 이러한 원리를 모르지 않았다. 기독교의 천사론은 신화적 형태를 띠었지만 최초의 전달과학이었고, 그것의 토대는 하나의 전쟁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다. 기독교의 천사(angelos)는 메시지 전달자(messenger)를 의미한다. 구약성서 속에서 복음의 우체부인

천사들은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개별 존재가 아니라, 위계화되고 임무가 주어졌던 사제단이다. 이들은 “하늘의 군대” 또는 “신의 호위병”이란 이름 아래 정치-군사적 형태로 조직되어 있고, 악마와의 투쟁, 사탄의 군대와와의 투쟁이라는 대립관계 속에서 매우 분화된 위계에 소속되어 있다.²⁾

중립적인 매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이 따르지 않는 전달이란 없다. 피어스(Peirce)가 강조하듯이 기호의 해독은 삼원적이며, 거기에서 “해석항(interpretant)”이란 개념이 중심을 차지한다. 그러나 기호학자가 이 단어로 의미하는 “메시지 해석의 규칙체계”는 메디올로지학자가 보는 것과는 상이하다. 메디올로지학자가 보는 해석의 규칙체계란 바로 메시지를 “총서(oeuvres complètes)”, “성서”, “코란” 등의 형식아래 봉쇄하는 동시에, 정당화되지 않은 해석공간을 폐쇄함으로써 메시지의 끊임없는 의미함축의 게임을 정지시켜 해석을 고정시키는 임무를 띤 제도화된 중재자들이다.

하나의 사상전통의 형성은 곧 집단적인 사상공동체의 형성을 의미한다. 사상의 발전경로에 개입하는 개별적 커뮤니케이션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이 공동체이다. 사상의 내용일체는, 그 사상에 관련된 영역을 규정하고, 고유한 어법을 지니며, 위계와 지위표식기를 지닌 권위체와 동시에 구성된다. 사실, 모든 독트린의 내용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여 전달을 독점할 수 있게 만드는 전달자의 권위에 의해 역행적으로 구성된다. 성서에 쓰여진 내용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현현하는가에 대해 “사후”에 개입하는 교회의 모델은 이러한 메카니즘의 좋은 사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도와 해석은 동행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신학은 권위의 피라미드인 기독교 교회와 동시에 형성된 것이다. 전달된 형태는 그것을 “폐쇄하는” 조직체에 의해서 생산된다. 결국 사고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조직체인 것이다.

2) 천사들은 다음과 같은 세계의 질서 또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한 위계를 이룬다. 천사들은 모두 상급, 중급, 하급으로 구분되고, 상급에는 제1천사séraphins, 제2천사chérubins, 제3천사trône, 중급에는 주천사(dominations), 역풍천사(vertus), 능천사(puissances), 하급에는 권천사(principauté), 천사장(archange)이 속한다.

<참 고 문 헌>

Debray, R.(1991). Cours de médiologie générale. Paris: Gallimard.

Lévy, P.(1990). Les technologies de l'intelligence: l'Avenir de la pensée à l'ère informatique. Paris: La Découverte.

Latour, B.(1989). La Science en action. Paris: La Découverte.